

올림과 잠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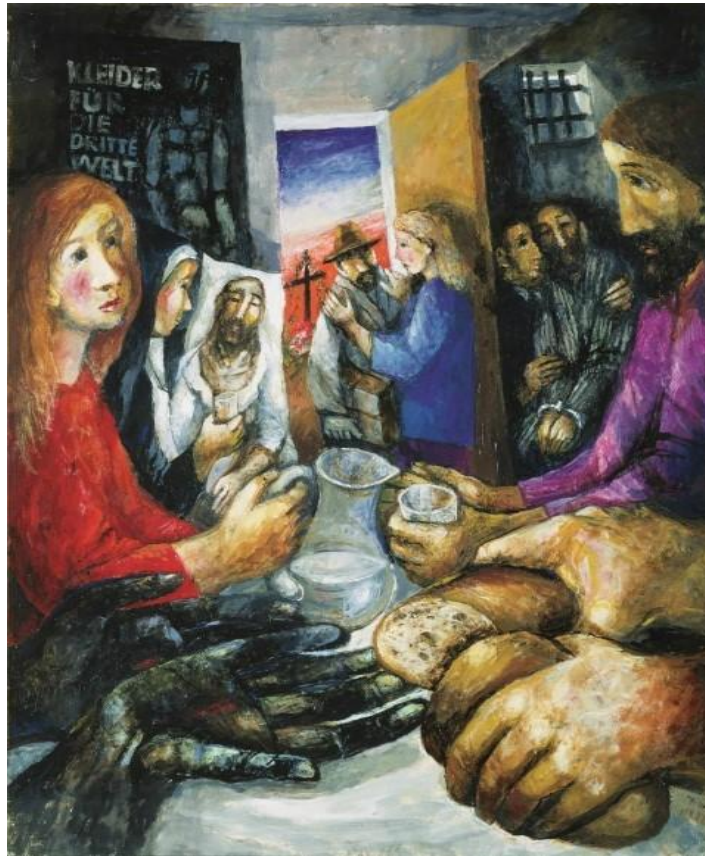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발행: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발행인: 오승수 시몬 신부 Pastor: Rev. Simon, Seungsoo Oh
편집: 본당 편집회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detroit.org/detroit/bbs/monthly-meeting/>

연중 제 5 주일 (2026년 2월 8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4)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지거 쿠퍼 (Sieger Köder, 1925-2015) Oil on Canvas

지거 쿠퍼 (Sieger Köder)는 독일의 카톨릭 사제이자 화가이다. ‘현대종교미술의 최고봉’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거 쿠퍼 신부는 20세기 대표적인 표현주의 화가로 성서 내용을 주제로 한 작품만 200여점 이상 남겼다. 이 작품은 마태오 복음 25장 35-40절의 말씀을 모두 한 화면에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표현한 것으로써, 예수께서 제시하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맨 앞에 빵을 받으려는 검은 손은 붉은 못자국이 보이는 예수님의 손을 표현한 것으로써 험벗고 굶주린 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굶주린 이에게 네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 준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이사 58, 10)



1. 시작 성가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가톨릭성가 421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SCAN ME

421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연중

(요한 8,12) 원선오

1. 나는 세 상의 빛 입 니 다 나 를 따 르 는 사 람 들
 2. 나는 진 리의 생 입 니 다 나 를 따 르 는 사 람 들
 3. 나는 구 원의 길 입 니 다 나 를 따 르 는 사 람 들

은 은 이 들 속 을 건 지 아 니 하 - 고 생 명 리 원
 은 평 생 목 마 르 지 아 니 하 - 고 구
 은 헛 된 수 고 하 지 아 니 하 - 고 구 원

의 빛 을 언 을 것 입 니 다 생 명 리 원
 의 생 을 언 을 것 입 니 다 구
 의 길 을 언 을 것 입 니 다 구 원

의 빛 을 언 을 것 입 니 다 생 명 리 원
 의 생 을 언 을 것 입 니 다 구
 의 길 을 언 을 것 입 니 다 구 원

2. 인사 나누기 및 출석 확인

- 참석한 반원들과 초대 손님이 있으면 인사를 나누고 반원들의 근황과 소식을 나눕니다.

3. 기도 지향 나누기

- 오늘 반모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지향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4.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성령의 힘으로 제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5. 하느님 말씀

- 어느 분이 (혹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중 하나를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 5,13-16)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15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16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리라.

(이사야 58,7-1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7 “네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네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 주고 네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8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네 뒤를 지켜 주리라. 9 그때 네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네가 네 가운데에서 멍에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 버린다면 10 굶주린 이에게 네 양식을 내어 주고 고생하는 이의 뉘를 흡족하게 해 준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 각자 마음에 와닿는 말씀 (최소 한 단어 / 최대 한 문장) 뽑는 시간을 1분간 가지겠습니다.
- 10분 동안 각자 선정한 말씀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6.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말씀이신 주님, 말씀 안에서 새긴 당신의 사랑을 제 삶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을 믿고 당신께 기도하고 당신을 선포하며 성령이 주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7. 말씀과 생활 나누기

- 그 말씀을 왜 선택했는지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각자에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짧게라도 되도록 기도한 모든 이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달 반모임 말씀과 생활 나눔

- “어디 계십니까?” (마태 2,2) 하느님을 모시려면 먼저 하느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동안 제가 찾으려는 노력을 너무 게을리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일상 속에서 하느님을 찾으려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 여기 있다”라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NV2]
-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마태 2,2)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T]
- “그 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 2,2) 늦게 신앙을 갖게 되어 아직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이런 나눔의 자리에서도 말실수를 할까 걱정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 신앙을 갖고 성당에 나오게 되었고, 세례를 받으면서 상황이나 욕심보다 그저 하느님께 경배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RC2]
-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마태 2,6)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작아 보이는 존재라도 스스로를 낮게 여기지 않고 성실히 살아간다면 하느님 뜻 안에서 큰의미와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TR3]
-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마태 2,6) 주변과 비교하다 보면 늘 자신이 작아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진실한 기준을 찾게 되고, 더 이상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TR4]
- “보살피리라.” (마태 2,6) 한국 방문 당시 부모님께서 제 머리에 염색약을 발라주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께로부터 보살핌을 받았던 마음이 다시 느껴져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RC2]
-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마태 2,6)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C3]
-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마태 2,7) 헤로데처럼 계산이 많아 불안해지고, 그로 인해 실수와 죄를 짓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자리에서든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RC2]
-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었다.” (마태 2,9) 방황하던 별이 마침내 멈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평화와 안정이 있는 곳에 머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RC3]
-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 없이 기뻐하였다.” (마태 2,10) 별을 보고 따라가면 아기를 만날 수 있다는 마음에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했을 것 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기에 기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A2]
-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 없이 기뻐하였다.” (마태 2,10)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공허함과 갈증을 채우기 위해 찾아 나서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매다 마침내 별을 보았을 때의 기쁨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RC2]

-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마태 2,11) 초라한 구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을 봅시다. 저는 그동안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현실에만 너무 충실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요즘은 조금씩 기쁜 마음으로 미사와 기도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NV2]
-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마태 2,11) 어려운 여정 끝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깊은 믿음이 부럽게 느껴졌고, 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TR3]
-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 2,11)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시점에서, 나도 하느님께 무언가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NV2]
-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마태 2,11) 현실적인 고민과 선택 앞에서 갈팡질팡할 때, “가라”, “머물러라”와 같은 하느님의 분명한 지시를 듣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TR3]

8. 건의 및 기타 토의

- 우리 반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 토의할 사항에 대해 나눕니다.
- 참석 반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득표를 받은 사항을 본당에 건의합니다.

9. 공지 사항

- 본당 공지 사항과 구역, 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0.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와 날짜를 정합니다.

11. 마침 기도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모두 다 함께 ‘**소공동체 모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반 모임에 참석한 모든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시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12. 마침 성가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활 성가집 셀라 112번 “나의 안에 쉬어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112 나의 안에 쉬어라



▶ SCAN ME

이사 43 ; 요한 15,4

류수영

나의 안에 쉬어라 - 나는 네 하느님이니 - 모든

환난 가운데 - 너를 지켜주리라 - 두려워하지말라 - 내가 널

도와주리라 - 놀라지말라 - 네 손잡아주리라 - 내가 너를

지명하 - 여불렀으 - 니 너는 내 것이라 - 내 것이라 - 너의

하느님이라 - 내가 너를 보배롭 - 고 소중하 - 게 여기노라 - 너를

사랑하 - 는 네 주 님 이 라 -

-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5년 재의 수요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다시 되새겨 봅니다.

재의 수요일 강론, 프란치스코 교황 “유해 미세먼지로 가득한 세상에서 재는 우리가 누구인지 일깨웁니다.”

교황청 내사원장 안젤로 데 도나티스 추기경이 로마 아벤티노 언덕에 위치한 산타 사비나 대성당에서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 미사를 거행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도나티스 추기경이 대독한 강론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는 사순시기에 희망을 되살리자고 초대했다. 미사에 앞서 산탄셀모 성당에서 산타 사비나 대성당까지 참회행렬이 이어졌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당신의 은총으로 저희의 회심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해 주시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행위가 우리 영혼의 깊은 쇠신에 부합하게 하소서.” 이 기도와 함께 교황청 내사원장 안젤로 데 도나티스 추기경이 교황을 대신해 로마 아벤티노 언덕에 위치한 산탄셀모 성당에서 사순시기 시작 예식을 집전했다. 이후 산탄셀모 성당에서 산타 사비나 대성당까지 참회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산타 사비나 대성당에서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하고 재의 수요일 미사를 봉헌하며 사순시기 여정을 시작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마음으로 함께

‘성인 호칭 기도’를 바치는 가운데 산탄셀모 성당에서 산타 사비나 대성당까지 참회행렬이 이어졌다. 많은 신자들을 비롯해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산탄셀모 성당의 베네딕토회 수도자들과, 산타 사비나 대성당의 도미니코회 신부들이 재의 수요일 미사에 함께했다. 도나티스 추기경은 미사 강론을 대독하기에 앞서 교황을 향한 마음을 전했다. 교황은 2월 14일부터 로마 제멜리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재의 수요일 강론을 미리 마련했다.

“이 순간 우리는 교황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마음 깊이 느낍니다. 온 교회와 온 세상의 유익을 위해 기도와 고통을 봉헌하고 계시는 교황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약함 체험

교황 강론은 ‘나약함’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이는 부활을 향한 사순시기의 핵심어들이다. 교황은 ‘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를 받기 위해 머리를 숙이는 행위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초대라고 말했다. “재는 우리 삶의 나약함과 보잘것없음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우리는 먼지이고, 먼지에서 창조됐으며,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인생은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특히 삶 속에서 겪는 나약함을 통해 이를 깨닫게 됩니다. 온몸을 짓누르는 고단함, 직면할 수밖에 없는 약점들, 마음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 영혼을 태우는 실패의 상처, 안개처럼 흩어지는 우리 꿈의 덧없음,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허무함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체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참모습을 배워 갑니다.”

유독한 미세먼지

질병은 우리에게 나약함을 생생히 체험하게 한다. 빈곤과 고통 또한 “때로는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예고 없이 들이닥치며” 나약함을 체험하게 한다. 교황은 우리 세상의 영적 환경을 오염시키는 “미세먼지”를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념적 대립, 지배 논리, 타인을 배제하는 낡은 정체성 이념의 부활, 자연 자원의 무분별한 착취, 모든 형태의 폭력, 나라들 사이의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성 지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평화로운 공존을 가로막는 ‘유해 미세먼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마음 속에는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외면되는 죽음

우리의 나약함은 종종 ‘외면되는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교황은 외모 지상주의 사회의 논리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애써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죽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덧없음과 찰나적 특성을 가리키는 표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들과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기 위해 정교하게 고안된 인위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재는 우리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우리의 이기적 성향을 누그러뜨리며, 현실로 돌아오게 하고, 서로에게 더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게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하느님의 눈에 소중한 ‘재’

교황은 재를 받을 때 머리를 숙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동시에 “죽음의 심연에서 일어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을 바라보기 위해 머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사순시기 동안 살아내야 할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 조건의 나약함을 수동적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고, 특히 죽음 앞에서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어리석은 자들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교황은 우리가 비록 먼지이지만 “하느님의 눈에는 귀중한 먼지”라고 강조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향한 부르심으로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보여줍니다.

교황은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다시 모시라고 초대했다. “바람에 흩어지는 재처럼 약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마침내 부활하신 분의 희망으로 밝혀지게 합시다.” 교황은 그리스도를 향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인간을 “세상을 위한 희망의 표징”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자선 활동이 “자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서로의 필요를 함께 나누도록 초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크마리탱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구걸하는 ‘하늘의 거지’입니다.” 교황은 단식을 통해 우리가 “사랑과 진리에 굶주려 있음을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직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 사이의 사랑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배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게 한다”고 말했다.

강론 후 ‘재의 축복과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 이어졌다. 추기경단 수석 추기경인 조반니 바티스타 레 추기경이 도나티스 추기경의 머리 위에 재를 얹었으며, 이어 도나티스 추기경이 신자들의 머리 위에 재를 얹었다.

글 : Benedetta Capelli

번역 : 김호열 신부

출처 : 2025년 3월 5일자 바티칸 뉴스